

# 노후경제적 대비여부에 따른 가계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

양 세 정(상명대 교수) · 이 성 립(성균관대 교수)

본 연구는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가계의 주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노후의 준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주관적으로 노후대비를 한다고 평가할 경우는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경우에 비해 실제 재무관리 행동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자산 축적 상태에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노후를 대비하거나 혹은 대비하지 않는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노후대비 여부의 차이에 따라 객관적인 자금 보유 상태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노후 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후의 경제 상태에 대한 자신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노후 대비 여부별로 재무관리 행동과 재무상담 요구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가구대상 자료인 2007 간접투자자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인 은퇴 전 가구 중 약 46.4%는 노후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이상(53.6%)은 노후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전에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장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 인식 제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를 대비하는 가계는 대비하지 않는 가계보다 소득, 소비지출, 저축, 금융자산, 실물자산 보유 수준이 높으나, 부채 보유수준은 차이가 없다.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연간 소득은 평균 9,752만원으로서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가계의 연평균 소득 5,492만원의 1.78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가계는 의식주관련 기본생활비와 부채상환 등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지출을 주로 하고 있어서 노후 대비를 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령대별로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는데, 향후 적극적 노후 대비 수요층인 40대는 50대와 60대에 비해 금융자산 보유비율이 높아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전 세대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노후 대비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주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 2가지 유형의 자산 비중이 매우 높는데,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 은퇴자산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가계는 노후 경제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낮으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가계도 노후의 경제 상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는 대비를 하는 가계에 비해 가계 재무상태가 열위에 있고 재무관리 행동 면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거나 가계부 기입이나 신용카드 관리 등 기초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